

차준희 교수의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

5강 흔들림의 영성

1. 하나님의 '후리기'와 '강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렘 20:7)

예레미야 20:7-18은 예레미야의 탄원(고백) 가운데 마지막 단락이다. 이 단락은 흔히 7-13절의 탄원시와 14-18절의 자기저주로 나눈다. 여기서는 탄원시 부분을 7-9절과 10-13절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예레미야의 탄원은 아웨게서 자신을 유혹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한다.

“오, 여호와여, 주님은 저를 꺾어내셨습니다(히_파타흐).
저는 꺾임(히_파타흐)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은 저를 강탈하셨습니다(히_하자크).
저는 당했습니다”(렘 20:7, 필자 사역).

유감스럽게도 이 구절의 우리 말 성서의 번역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파타흐'와 '하자크'라는 히브리어 동사이다. '파타흐'는 여성에게 결혼 전에 성행위를 승낙하도록 설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파타흐)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출 22:16; 참조. 호 2:14; 욥 31:9).

'하자크'는 여성에게 혼외정사(婚外情事)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그녀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하자크)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신 22:14; 참조. 사 19:25).

즉 '파타흐'는 '유혹' 또는 '후리기'(남의 것을 갑자기 빼앗거나 슬쩍 가지다)를 뜻하고, '하자크'는 '강간'을 뜻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넣어준 말씀을 성실하게 전한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렘 20:8)

그 말씀은 '파멸(히_하마스)와 멸망(히_쇼드)'이었다. 파멸과 멸망은 예언서에서 일반적으로 사람

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가리킴과 아울러 그에 대해 하나님이 벌주신 결과로 한 공동체가 겪는 처참한 상황을 뜻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레미야의 폭력적인 언어에 분노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드디어 백성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집어치우려고 해보았다.

“내가 다시는 야웨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의 근원인 야웨에 대한 불신 때문에 파업으로 맞서보려고 하였다. 예레미야는 ‘악덕고용주’로 보이는 야웨께 ‘예언적 파업’으로 맞선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야웨를 이길 수 없다. 이미 자신 안에 역사하는 야웨의 말씀은 그의 안에서 ‘불’로 역사하기 때문이다(참조. 렘 5:14; 23:29). 그는 야웨의 소명을 포기하려는 순간 속이 타들어 가는 고통을 경험한다. 예레미야는 소명을 수행하면 사람들에게 의한 외적인 압박(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해야 하고, 소명을 거부하면 야웨에 의한 내적인 압박(살이 아니라 뼈가 불타는 듯한)을 경험해야만 했다. 야웨의 말씀은 침묵하려는 예레미야를 ‘불 고문’한다. 불은 몸 안의 뼈에 있어서는 안 된다. 뼈를 해칠 뿐이다. 이것은 밖으로 분출되어야 한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밖으로 토해내야 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한다. 예레미야의 문제는 신실하지도 않고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도 않는 야웨의 처신에 있다. 급기야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더 큰 고통에 직면해야만 했다. 예언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었으며,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을,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도 말해야 했다. 예언자는 예언 사역 활동을 중지할 수 없었고, 그가 받은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바꿀 수 없었다. 그가 선포하였던 메시지는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진실의 결과였다. 예레미야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모름지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고전 9:16; 참조. 암 3:8).

2. 절망에서 찬양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렘 20:13)

이어지는 탄원단락(렘 20:10-13)은 탄원(10절), 신뢰고백(11절), 간구(12절) 그리고 찬양(13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탄원시(10-13절)는 ‘히_키’(왜냐하면)문장을 통하여 앞 단락의 예레미야의 탄원과 연결된다. 그러나 주제는 바뀐다. 예레미야가 백성을 향하여 선포했던 강포와 멸망이 예언자 자신에게 적용된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렘 20:10a).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바스홀에게 붙여주었던 ‘마골-밋사빱’(사방의 두려움)이란 말을 가지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였다(렘 20:3). 이 말은 예레미야가 아주 빈번히 사용하였기 때문에(렘 6:25; 20:10; 46:5; 49:29) 그것이 오히려 예레미야의 별명이 되었다.

“저기 낱아빠진 마골-밋사빱이 지나간다!”

이 이름은 이제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멸시와 비난의 이름으로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예레미야의 적대자들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언자를 조롱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그를 제거하려는 행동 단계까지 나아간다: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10b절).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렘 20:10b).

예레미야는 사방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제 예레미야의 유일한 호소의 근거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신앙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하오나 여호와와는 두려운 용사(히_깁보르 아리츠)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렘 20:11).

여기서 ‘깁보르 아리츠’는 전통적으로 ‘무서운 전사’, ‘무서운 투사’로 번역된다. 그런데 ‘히_아리츠’는 다른 곳에서는 무서운 적들이나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현재의 본문은 이것이 구약에서 아웨에 대해서 언급하는 유일한 경우이다. 또한 ‘히_깁보르’(용사)는 예레미야 14:8-9에서 보듯이 도와주시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아웨이심을 뜻한다.

예레미야는 위기의 순간, 자신이 소명 받을 때 주어진 예레미야 1:18-19의 아웨의 약속을 회상할 수 있었다.

“18)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렘 1:18-19)

이를 통하여 그는 마침내 야웨로의 방향성을 다시 찾게 된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신뢰고백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진정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다. 그는 야웨의 능력이 의지할 만하고 기대할 만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야웨 하나님께 동기(motivation)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야웨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당신의 책임을 기억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신하게 되자 그분께 간구한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렘 20:12).

예레미야는 자신의 손으로 보복을 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야웨께서 자신의 특성에 합당하게 보복을 행하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 단락은 13절의 찬양으로 끝난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렘 20:13).

여찌 보면 13절은 위치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어지는 14절에서 예레미야는 다시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본래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어야 할 구절이 잘못 끼여 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절은 7-12절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며, 탄원시의 한 요소인 기도의 해결로 인한 찬양으로 볼 수 있다. 예레미야는 이 찬양을 통하여 야웨의 응답, 야웨의 개입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절망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것을 기뻐하는 기도 분위기의 급변은 구약의 기도에서 종종 발견된다(시 6:9; 22:21). 이는 실제 기도 체험에서 나오는 사실이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내적인 혼란과 외적인 박해로 야기된 압력 앞에 좌절당했을 때, 즉 그가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야웨로 방향성이 고정되자 오히려 야웨에 대한 신앙이 새로워졌고, 고요한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마치 시편 23편의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는 확신에서 내적 고요함을 얻었듯이 말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야웨를 향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다.

“믿음이 현실을 당장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사실 삶의 주체인 나를 바꾸어 놓을 뿐이다.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현실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이 신앙의 연금술이다. 생의 문제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이다. 그것은 의미를 빛는 일이기도 하다”(김기석, <기상>, 2009, 7).

3. 예레미야의 갯세마네 기도: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렘 20:14)

예레미야 20:13에서 표현된 확신 있는 찬양의 여운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이어 나타나는 14-18절은 독자들을 당혹하게 한다. 이 단락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레미야가 겪는 삶이 너무 복잡하고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승리의 찬양 뒤에도 좀 더 언급할 것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 같다. 적어도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그에게서 이와 같은 면을 발견하였음에 틀림없다. 예레미야는 갑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렘 20:14).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단락은 “저주로다(히_아루르) 그날 곧 내가 태어난 날” (14a절)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첫 단어인 ‘아루르’(저주로다)가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 보통 저주란 인격을 가진 사람이나 원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생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일이 원수처럼 간주되고 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함으로써 자기 직무 전체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다(참조. 렘 1:5).

더 나아가 그는 15절에서 사내아이가 출생했다는 좋은 소식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한 사람을 저주한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렘 20:15).

이어서 저주의 내용이 16절에 전개된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더라,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
좋을 뻔하였나니”(렘 20:16).

“여호와께서 무너뜨린 성읍”이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무너뜨리다’(히_하파크) 동사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암시한다. 또 그가 아침에 들어야 할 ‘부르짖는 소리’(히_제아

카)는 예레미야 6:4와 15:8에, 낮에 들어야 할 ‘떠드는 소리’(히_테루아)는 4:19에 나오는 단어 들이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히_테루아)를 들음이로다”(렘 4:19).

이 구절들은 아웨께서 이방 민족들을 불러들여 일으키신 전쟁의 재난에 시달리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출생과 출생 전달자를 저주함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피한다.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이다(레 20:9; 24:15). 예레미야는 저주로 시작하지만, 신앙의 경계가 어디인지 놓치지 않는다. 또한 부모들이 얼마만큼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지 않았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뿐이다.

예레미야는 차라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었다면(17절), 이처럼 세상에 나와서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며 깊은 탄식으로 끝을 맺는다(18절).

“17)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18)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렘 20:17-18).

예레미야와 같이 경건한 사람에게도 내적으로 기분이 고양되는 순간에 다시 침체의 시간에 빠져 들 수도 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이 예언자가 경험한 최악의 침체순간을 만난다. 이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 저주’이다. 하나님의 사명은 구약의 예레미야에게도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와 같은 고통과 절망의 기도를 드리게 만들었다.

나가는 말

예레미야 20장을 읽고 나면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 심지어 전문신학자들도 당혹스러워 한다. ‘그래서… 어찌라는 건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하박국이란 선지자는 하박국 3:17-18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7-18).

라고 한다. “지금 내게 아무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적어도 이쯤 되어야 우리 신앙인들이 존경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삶을 한탄하면서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다. 이렇게 흔들리는 예레미야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과 현재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마구 흔들리고 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고통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부정해 버리는 것이며, 또 전하지 않으면 타죽는 것 같기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흔들리는 바로 이 모습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나침반을 한 번 생각해 보자. 그 기능이 무엇인가?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길 잃을 이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어디에 있든지 나침반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움직인다. 나침반이 흔들림을 멈추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고장 난 것이다. 북쪽을 찾기 위해 계속 움직여야 그 나침반은 건강한 것이다. 나침반의 흔들림은 나침반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흔들림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올바른 신앙을 찾아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떨림’인 것이다.

저희 집에는 딸이 둘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만하면 나는 아주 훌륭한 아빠야!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좋은 아빠가 아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나는 나쁜 아빠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보다는 ‘흔들림 있는 고민’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이다. 흔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와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아’와의 끊임없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적 흔들림’이요 ‘거룩한 떨림’이라고 할 수 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詩)가 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인은 말하기를 흔들릴 때 오히려 줄기를 곧게 세우고, 흔들릴 때 오히려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말한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흔들릴 때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의 이 흔들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흔들림이었고,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고 더 확고해진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는 그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체크해야 한다. 그래야 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자신도 돌아볼 수 있다. 우리는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침반과 같이 온전한 신앙을 찾아서 열심히 흔들리며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겸손한 태도이다.

나침반 바이블
BIBLE